

The Media Korea

교민과 함께 만드는 신문

Email : themediak@gmail.com Tel : 021-5579-6569 광고문의 : 0858-9060-0962, 0815-1066-5868

제4대 채만용 땅그랑 반튼 한인회장 취임



2018년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이사회 임시총회

전민식 후보, 제6대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회장으로 당선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회장 양영연)는 11월29일 호텔 쉐라톤 간다리아시티에서 '2018년도 이사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제6대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회장 선출을 하였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사회는 1부, 국민의례에 이어 한인회원과 선관위 소개, 2부에서는 한인회장후보자 선출과 보고, 투표와 개표절차 설명, 입후보자 기조연설, 투표 및 개표, 당선자 발표, 낙선자 인사, 당선자 인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인회 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112명 가운데 88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전민식 후보가 57표, 최병우 후보가 31표를 얻었다. 투표결과에 따라



다득표 한 전민식후보가 한인회장에 당선되었다.

전민식 차기회장은 당선소감에서 "한인사회가 걸어온 경로를 무시하여 얻는 가치보다는 세대를 불문하고 함께 했을 때, 더욱 값진 결과와 보람

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모두를 아우르는 한인회가 되도록 최선의 다하겠다"며 "함께 가는 한인회! 먼저 다가가고 화합하며 나누는 한인회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해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양영연 한인회장은 "이 선거를 통해 우리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인정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를 이어 나가기를 바란다. 차기 회장단에게도 제게 힘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임원



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민식 차기 한인회장은 2019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경제조정부,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 정보통신 분야 등 25개 업종 외자 투자 100% 가능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는 19일 최근 발표한 제 16차 경

제정책패키지에서 외자 기업의 지분을 제한하는 네거티브 리스트(투자 규제 분야) 가운데 25개 업종은 외자 기업이 100% 출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안파라뉴스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정보통신과

에너지·광물 자원, 건강 분야 등 8개 분야의 25개 업종을 개방한다.

다르민 경제조정장관은 "어디까지나 국내중소영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네거티브리스트를 개정했다"라고 강조했다.

미디어 코리아 광고를 제안합니다.

미디어 코리아는 귀사의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1. 개요

특 징

미디어 코리아는 탄탄한 디자인파워를 바탕으로 한 타블로이드판 정보지로써 귀사의 홍보를 지면을 통해 대행해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함께하는 매체로 다가갈 것입니다.

2. 광고 상품안내

연간(12회) 계약 혜택 :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3. 연락처 및 문의처

021-5579-7281 (mr. kang)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Furniture DONGSEO

Kawasan Industri Manis II, Jl.Palm Manis IV No.61
Gandasari, Jatiuwung, Tangerang Banten - Indonesia

Marketing contact :
+62 021 591 5637
dongseowood@yahoo.co.id



Our Product :

- Doors & Frame
- Furniture Oustom
- Interior Molding
- Flooring
- Skirting
- Paint finish
- + Wood Veneer
- + Duco
- Laminate Finish
- + HPL
- + PVC
- Alumunium door & Frame

땅그랑 반튼 한인회 인니 최고의 한인의 밤 행사 성료



지난 3년간 소통과 화합의 장 만들기에 전심전력 기울여
3대 오세명 회장 각고의 노력으로 최고의 한인회 만들어
4대 채만용 회장 더 성숙한 한인회를 만들 비전과 의욕 보여

지난 16일 재인도네시아 땅그랑 반튼 한인회는 2018년 한인의 밤 행사와 더불어 제3대 오세명 회장의 이임식과 제4대 채만용 회장의 취임식이 땅그랑 소재 임페리얼 CC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김종민 총영사를 비롯해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승은호 명예회장,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양영연 회장, KO-CHAM 송창근 회장, 재인도네시아 민주평통 자문회 송광종 회장, KOFA 신만기 회장,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강희중 회장, 땅그랑반튼 한인



되어 창립하게 되었다.

이후 2대 하연수회장, 3대 오세명회장의 봉사와 희생으로 땅그랑 반튼 한인회는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 한인단체에서도 부러워하는 화합과 소통이 멋지게 되고 있는 한인회로 알려져 있다.

땅그랑 반튼 한인회의 주요 활동으로는 매년 실시하는 다문화가정돕기 어린이날 큰잔치와 한인동포의 여가선용과 정서적 합양을 위한 한인문화센터운영, 격년으로 실시되는 인근 불우한 환경의 아동을 위한 수낫판 행사를 크고 작은 행사로 항상 지역 한인동포와 교감을 같이 나누는 소통을 해 왔으며 한인회 내부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

하여 한인동포의 불이익과 권익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앞장서 왔다.

또한 3대 오세명 한인회장은 PT.PRATAMA 서영률 회장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기존 아파트내에 있던 한인회 사무실을 인근 피낭시아로 옮겨 보다 더 많은 우리 한인 동포들과 항상 교감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왔다.

이러한 활동으로 지난해 대선때 최초로 땅그랑 반튼 한인회 사무실에 투표소가 설치되어 지역한인의 소중한 참정권을 더욱 더 많이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번 제 4대 회장으로 선출된 채만용 회장은 인도네시아 신발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견기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한인회 3기의 수석부회장의 직무를 수행했다.

신임 채만용 회장은 취임사에서 한인회는 우리 한인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단체라고 한인회의 가치와 기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모두발언을 했으며 땅그랑에 많은 직능단체, 봉사단체, 문화단체등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땅그랑 반튼 한인회는 우리 동포 모두를 대표하고 동포와 함께 하는 우리네 이웃이고 가족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새로운 한인회는 세대간, 직업간, 지역간 더 많은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내야 할 때라고 말했으며 고국을 떠나 이방땅에서 우리가

우리를 지키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더 하나됨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 슬로건으로 9년간 탄탄한 땅그랑 반튼 한인회를 만들어 왔다고 했다.

이날 승은호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명예회장은 축사에서 많은 한인회를 초청받아 가봤지만 땅그랑 한인회 같은 한인회는 없었다며 극찬을 하기도 했다.

제 4대 땅그랑 반튼한인회는 지역의 업종간 화합과 소통을 위해 봉제 기업인인 서광호 수석부회장을 위촉해 명실공히 탄탄한 4기 한인회의 출범에 청신호를 알렸다.

이번 행사에 더욱 더 돌보였던 부분은 198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가수 전영록씨의 출연으로 이날 행사장에는 옛날의 향수와 더불어 감성과 감동의 콘서트 같은 분위기가 내내 이어졌다.

특히 행사 마치는 시간까지 모두가 다 하나되고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되어 한층 더 성숙해진 우리 한인동포의 행사문화가 되었다.

땅그랑 반튼 한인회 새로운 회장단과 사무국요원들은 동포 여러분들에게 더욱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지금 까지 그래왔듯이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한인회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한목소리를 냈으며 더욱 더 하나됨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18년 제 9회 땅그랑 반튼 한인회 송년의 밤 행사는 4대 채만용 회장을 시작으로 큰 걸음으로 성장하는 한인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인니 비지니스의 脈

20년 세월! 한인동포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과
인허가, 비자대행 업무로 한결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신뢰와 성실로 다져온 CITRA CONSULTING은
한인동포의 어려움과 보다 안정된 사업을 위해 함께 해 나갈것입니다

Try your best rather than be the best

CITRA Consulting

주요업무

시장조사 / 회사설립 / 수출입 관련 서류 및 보세구역 / 체류관련 / 기타 업무



“한반도 평화에 동남아 역할은?” …한-인니 전문가, 머리 맞대

인도네시아의 국제관계 전문가들과 한국 학자들이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방안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및 인도네시아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인도네시아 유력 민간연구소인 하비비센터와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27일 자카르타 시내에서 ‘새로운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맞아’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진행했다.

한국 측 패널들은 최근의 남북관계 협상무드를 소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

현될 경우 동남아 국가들에 미칠 영향 등을 설명했다.

이상신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 국민의 72%가 휴전 중인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기 위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통일도 과거와 달리 실현 가능한 목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아세안 국가들은 선진국의 기술·자본 지원과 개발 협력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뤄낸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면서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발전 모델을 북한에 단계



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 분야 싱크탱크 ‘인도네시아 외교정책

은 한국보다는 다른 국가,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원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아마 남한보다 모든 면에서 자국이 우월하다는 선전을 해왔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은 북한에 정치적으로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라하마 암둘라흐 하비비센터 민주인권연구소장은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이 올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것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려는 아세안의 의향을 보여줬다”면서 “개최지를 제공한 외에 더 적극적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창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는 “2008년은 한반도에서 놀라운 드라마가 계속됐던 한 해였다”면서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의 협력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긍정적 모멘텀을 더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참석자들 사이에선 당사국간 직접 대화가 주축이 될 수밖에 없는 평화 프로세스의 성격상 동남아 등 제3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과대평가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16차 경제 정책 패키지 발표…인니 경제계 환영 일색



인도네시아 정부가 16일 발표한 제16차 경제정책패키지에 대해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 및 투자자에 대한 법인세 택스 훌리데이(일시 면세) 확대 등이 찬사를 받

고 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카단)의 신파 부회장(국제 관계 담당)은 “여러 서비스 관련 업종이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제외됐다”라고 말하며 “해외기업의 투자와 국내 진출이 확대돼 인도네시아인 직원의 기술과 서비스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했다.

신파 부회장은 이어 “또 합

작법인(JV)을 통해 국내 자본을 강화될 수 있다”라며 “인도네시아를 수입 시장이 아닌 생산 거점으로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과 의료 등 더 많은 분야에서 네거티브 리스트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 씨니 사무국장은 “택스 훌리데이 적용 범위가 1,000억 루피아이하로 완

화돼 더 많은 업종에서 투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해외 투자의 증가로 경쟁력이 높아져 국내 기업의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제16차 경제정책패키지는 ◇ 택스 훌리데이 조건 검토 및 법인세 감세 적용 범위 확대, ◇ 해외 직접 투자(FDI) 확대 위해 네거티브 리스트 완화 및 외자의 주식 보유 비율 변경, ◇ 자원 수출로 발생한 이익을 국내 특정 계좌에 예치한 기업에 우대 정책 제공 등 주요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중한 새싹

갓 피어난
새싹처럼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세찬 풍파 속에서도
항상 열린 마음으로
고객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푸른 새싹이
큰 나무로
성장 할 수 있는
멘토를
아낌없이 하겠습니다.

JC PT. JOO CONSULTANT

Office : Karawaci Office Park (Ruko Pinangsi) Block D37 Lippo Karawaci Tangerang
Tel : (021) 558 1618
Email : joo_consultant@hotmail.com/jooconsultant@hanmail.net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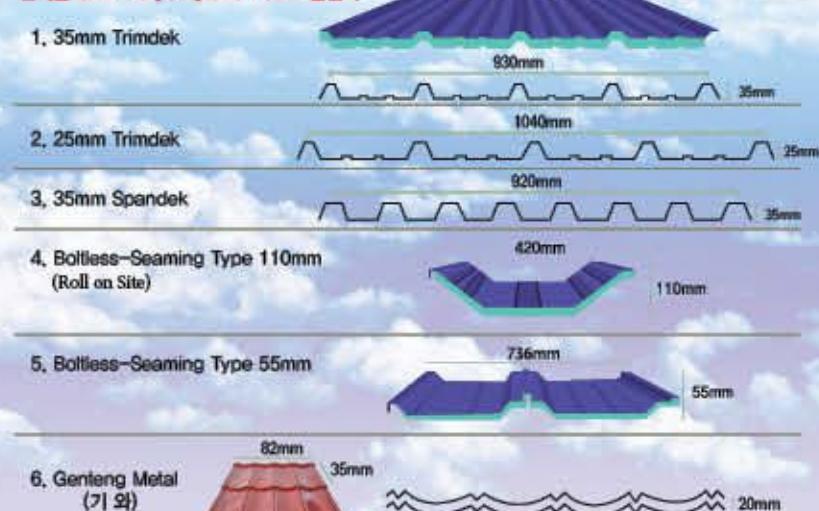
쾌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풀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체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저희 회사 전 제품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 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정부, 외국인투자 허용 확대와 조세인센티브 확대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세금우대 대상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제16차 경제부양책을 16일 발표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새 경제부양책에는 ▲외국인 투자금지 부문목록(DNI) 일명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을 축소 ▲한 시적 세금감면(Tax Holiday) 대상 확대 ▲기업이 자원 수출 수입을 국내 은행에 예치할 경우 소득세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와 새 경제부양책 시행을 위한 시행령을 논의하고 있으며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

현행 네거티브 리스트는 2년 전 개정된 대통령령(Perpres) No. 44/2016에 따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54개 분야에 대해 ▲외국인 투자 전면 허용 ▲외국인 지분 한도를 상향 ▲몇 가지 요구 사항을 삭제하는 등 외국인 투자 허용 부문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은 근해 석유가스 시추, 담배 생산, 의료장비, 낙농업, 작물인쇄, 인터넷 카페 비즈니스 등 부문은 전면 개방한다.

당국은 인도네시아에 외국기업이 투자할 경우 합작 형태로 국내 자본도 투자되고, 자국이 세계적인 소비시장에서 생산기지 국가로 전환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른민 나수띠온 경제조정장관은 일부 분야에서 외국기업이 중소기업과 합작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신규 투자가 사업을 위해 여러 가지 허가를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크럼고무산업(crumb rubber industry)처럼 일부 부문은 외국기업 진출로 기존업체들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인도네시아 고무생산자협회(Gapkindo) 무나르지 수다르고 회장은 이 부문은 이미 가동률이 낮은데 외국기업까지 진출하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에 고무산업 생산설비는 580만 톤이지만 고무 생산량은 363만 톤이 그쳤고, 설비가동률은 2017년에 가동률 61.73%로 2016년의 62.98%보다 하락했다.

로산 루슬라니 Kadin 회장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와 Kadin이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을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했고, 오는 27일 Kadin 전국지도자대회에서 다른민 장관이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른민 장관은 외국인투자 허용 부문 확대로 국내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27일 발표를 통해 이런 우려가 해소되길 바랐다.

사무엘증권 소속 애널리스트 라나 술리스띠아닝사는 DNI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서 오해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방침이다.

조세 인센티브 대상 확대 정부는 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투자와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몇몇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석유가스 생산 부문에 대한 간접세와 기업의 직원 교육비와 연구개발비 관련 세금을 낮춰주는 재무부 장관령(PMK)을 준비하고 있다.

또 상위 1~5% 범위의 고급 아파트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소득세를 인하하고, 고급 주택(upscale non-strata title houses) 매매 시 사치세를 부과하는 한도를 200억 루피아에서 300억 루피아로 상향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동산에 세금우대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고 건설 분야가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조세전문가 유스띠누스 뽀라스또워는 세금우대 정책을 설계할 때 생산과 유통 부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연속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기획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른민 장관은 텍스홀리데이에 관한 규정 PMK No. 35/2018과 네거티브 리스트에 관한 대통령령(Perpres) No. 44/2016를 개정한 규정은 금주 안에 발표하고 내주부터 발효할 방침이다. 수출 수입 국내 예치에 관한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인도네시아]

동부 자바 외 2개 주, 내년 지역최저임금 결정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 주와 중부 자바 주, 족자카르타 특별 주에서 내년도 지역최저임금(UMK)이 결정됐다. 동부 자바 주는 38개 시·군의 내년 지역최저임금(UMK)을 발표했다. 이 중 15개 시·군이 10% 이상 인상됐으며 인상폭이 최대인 지역은 빠수루안(Pasuruan)으로 월 최저임금은 257만 5,617루피아였다. 이 밖에 12개 시·군 등 많은 지역에서 노동부가 앞서 결정

한 수준인 8.03%를 웃돌았으며 수라바야시의 최저 임금은 387만 1,053루피아로 결정됐다.

중부 자바 주는 지난 21일 35개 시·군의 내년 지역최저임금(UMK)을 발표했다. 최저 임금은 주지사 통지 ‘2018년 제560/68호’로 정했다고 현지 ‘트리뷴 뉴스’가 전했다.

금액이 가장 높은 곳은 스마랑시로 월 249만 8,588루피아였다. 인상폭은 대략 8% 정도였다. 한편, 족자카르타 특별 주의 인상폭은 전 지역에서 노동부가 앞서 결정한 수준인 8.03%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 중국과 33조원 규모 통화스와프 체결

인도네시아와 중국 양국 중앙은행이 33조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19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발표에 따르면, 양측은 필요할 때 2천억 위안(약 33조 원)과 440조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를 맞바꿀 수 있게 됐다.

이는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민은행은 설명했다.

통화 스와프는 필요할 때 자국 통화를 상대국 중앙은행에 맡기고 상대 통화를 빌려 쓰는 것으로 마이너스통장과 비슷하다.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이번 스와프 협정은 기한이 3년이며 양측이 동의하면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중국은 2013년 중단됐던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를 10배인 2천억 위안(33조 원) 규모로 확대했으며, 영국과도 51조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연장했다.

GOOD
Interior • Taste • Service



www.sanjungkoreanresto.com

최고의
한식
셰프가
만드는
평양
식
밀
냉
면

Pork BBQ 7 Items!

Barbeque pork 20% Off

SANJUNG
REAL KOREAN BARBECUE

산정의 깊고 정갈한 맛. 정성스러운 서비스
그리고 품위있는 분위기를 즐기십시오.



전한식
바
베큐
만
두

명
품
만
두

Karawaci

Jl. Boulevard Palen Raya No. 2809 Taman Sari Lippo Karawaci
(021) 547-3172-3. Hp: 08222-09-55547

Cikarang

Jl. Majapahit, Desa Cibatu Kav.62, Lippo Cikarang
(021) 2909-3000, (021) 2909-3555 Hp: 0812-9037-7717

Pantai Indah Kapuk

Ruko the Gallery Block 8 unit FC Jl.Pantai Indah Utara 2, Pantai Indah Kapuk
(021) 3005-1650, (021) 3005-1660 Hp: 0811-823-9000

재인니 한인청년회&옥타 차세대 친선의 날 행사 성료



제 6회 재인니 한인청년회 & 옥타차세대 친선 골프대회 및 2018년 송년의 밤 행사가 지난 11월 17일 토요일에 땅그랑 모던 골프장(Modern Golf & Country Club)에서 개최됐다.

옥타 차세대 대표 원영태는 2019~2020년 차세대 대표로 선출된 신지훈과 대표직 이취임식을 갖고 참석자 140명 Shotgun으로 골프대회가 진행됐다. 이어진 송년의 밤 행사에는 약 180명이 참석했다.

한인청년회 정제의 회장과 옥타차세대 원영태 대표는 “우리 청년들이 2018년 한 해 고생한 만큼 좋은 자리에서 좋은 분들과 즐거운 시간

을 가지며 네트워킹의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날 행사에는 주인니 한국 대사관 김종민 총영사, 승은호 한인회명예회장, 김우재 월드옥타 명예회장, 양영연 한인회장, 송창근 상공회의 소회장, 신기열 한인회명예고문, 김병삼 코트라관장, 송광종 민주평통회장, 전민식 한인회 수석부회장, 최병우 재인니대한체육회 명예회장, 이강현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 이세호 땅그랑 명예회장, 최정훈 우리은행장, 박종진 하나은행 부행장, 유영택 신한은행 이사 등 초청 인사들이 참석하여 청년들에게 격려와 좋은 말씀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인도네시아 이민청의 Bapak. Zaeroji (Direktur Pengawasan dan Penindakan Keimigrasian), Bapak. Petrus Teguh (Kepala Kantor Imigrasi Bekasi), Bapak. Hasrullah (Kepala Kantor Imigrasi Palembang), Bapak. Yuliantoni (Kepala Seksi Imigrasi Ilegal Ditjenim), Bapak Pascall (Modern Cikande Industrial Estate CEO)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민청장 자에로지 씨는 축사에서 ‘인도네시아에 많은 투자와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에 감사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더욱 우호적이고 우애를 쌓아가길 바라며, 단단하고 하나가 되는 한국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사람들끼리 비난하고 신고하는 행위는 자양되기를 바란다’는 조언도 전했다.



비씨디플랫폼의 공유배달 앱 ‘배고파’는 최근 ‘마주 파트너스 인도네시아 (MPI · MAJU PARTNERS INDONESIA)’와 인도네시아 배달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마주파트너스 인도네시아는 ‘배고파’로부터 인도네시아 배달시장 진출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받고, 지분투자 등의 협

식으로 최대 100억원을 배고파 측에 제공하게 됐다.

마주파트너스 인도네시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매년 7%대의 경제 성장률과 2억 6천만명(세계 4위)의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스마트폰 보급률은 40% 수준”이라며 “이번 사업협약을 통해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인도네시아 온·오프라인 마케팅(O2O · Online To Offline)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게 됐다”고 말했다.

비씨디플랫폼의 배고파는 소비자에게 이익을 공유하는 신개념 배달서비스로, 이를 통해 국내 배달시장에 강력한 경쟁자로 주목받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말했다.

땅으랑시, 2020년

‘종이 없는 행정부’ 만들 것

반돈 주 땅으랑 시정부가 2020년부터 정부 사무실에서 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모

든 행정 업무를 수행할 계획을 밝혔다.

아리프 R 위스만야 땅으랑 시장은 “이 프로그램이 땅으랑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꼼빠스와의 인터뷰에서 “도시의 모든 서비스가 통합되고 종이가 필요 없도록 원한다. 내년에는 규제와 법적 프레임을 만들 생각이다”고 전했다.

땅으랑 시정부에 따르면, 종이를 사용하는 모든 행정 업무가 주민카드나 신분증과 같은 문서를 업로드해야 하는 앱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이후 거주자는 데이터를 확인했음을 알리는 통지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아리프 시장은 현재 시정부가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시장 규정을 작성하고 있다. 말하면서 여러 기술 회사와 함께 행정부가 현재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앱을 개발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현재 아카이브를 디지털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주민들이 더 이상 정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신분증이나 신분증을 지참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 자카르타서 프리미엄 한국 소비재 전시회 개최

인도네시아 최초 한국이 주최자로 개최되는 전시회 동남아시장의 거점 인니시장에 사상 최대 약 160개의 한국 기업 참여



▲ 프리미엄 한국 소비재 전시회 개막식 (사진=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센터 제공)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 자카르타센터는 11. 22 ~ 24 일까지 3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akarta Convention Center)에서 2018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Jakarta International Premium Products Fair)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무역협회와 코엑스가 토종 브랜드로서 인도네시아 진출하는 첫 전시회로 국내 160개사, 해외 및 현지 60개사 등 총 220개사가 참가하며, △전시 부스 운영 △1:1상담회 △부대행사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수출판로 개척에 나섰다.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은 기존에 개최해 오던 ‘서울 국제 프리미엄 소

장에서도 늘어나는 중산층 소비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에서 한류를 활용한 한국산 소비재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시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의 전시회 개최 및 제품 홍보를 통한 판로 개척에서 더 나아가 현지 및 인근 아세안 국가들의 유망 바이어 초청을 통한 맞춤형 1:1 상담회가 개최되고 현지 젊은이들의 소비 트렌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명 인플루언서 30인을 초청하여 우리 제품이 인도네시아인의 일상문화를 통해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무역협회 권도겸 자카르타 센터장은 “올해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 전시회의 성공적인 런칭을 통해 한류를 기반으로 한 한국의 우수한

소비재를 인니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시도는 참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며 “한류를 기반으로 한 한국의 우수 중소수출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LIT3
SINAR PERDII

가성비 최적의 제품을 공급합니다

공장 유니폼
단체복
골프복
기타

JWjindohwang@gmail.com
0812 1324 1251
021 5518 037

한국 컨설팅

PT. GLOBAL CENTER

20년 전통과 신용의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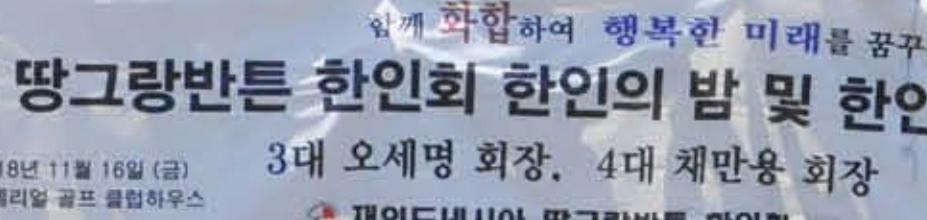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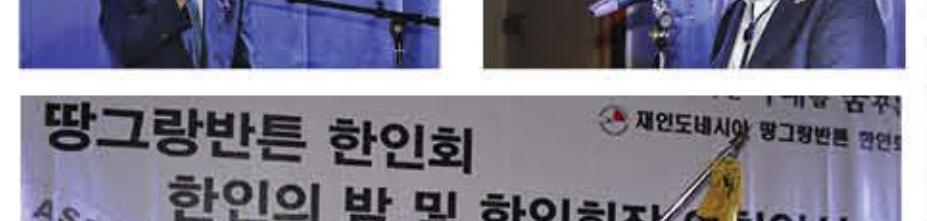
업무 내역:

1. 현지 법인 설립(PMA,PMDN,연락사무소)
2. 투자청,온라인 협회(OSS, NIB-APIU,P)
3. 이타스(ITAS) 및 은퇴비자(LANSIA VISA)
4. 부동산(주택,사무실,공장,건물 등)
5. 무역업무대행(제품,원부자재소싱등)

이메일 : ptgcc@hanmail.net 카카오톡 ID: kitas
Tel : 021-5577-6454, 021-551-4891
위치 : 땅그랑 리뽀 까라와치 루고 피낭시아내
신축상가 엑셀리스 NO.18 (명가식당앞 상가)



소통과 화합의 2018 땅그랑 반튼한인회 한인의 날



자화자찬 네 번째 전시회 열었다 대중속으로 한발 더... MAXX MALL 메인로비에서 열어



▲ 땅그랑 반튼한인회 미술반 자화자찬 네번째 전시회 오픈행사 이후 기념촬영



▲ 서현옥 선생님

지난 27일 땅그랑 반튼 한인회(회장:오세명) 문화원 미술반(강사:서현옥)에서 일 년간 준비한 미술반 작품전시회가 가라와찌 소재 MAXX MALL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예년의 아마파쁘라 아파트 로비를 벗어나 대중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전시회로 땅그랑 한인회 미술반의 성장된 작품들을 감상하게 되었다.

특히 MAXX MALL에서의 전시는 한인동포 뿐만 아니라 현지인과 함께 힐링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고 우리 한인동포의 정서를 고스란히 보여줄 수 있는 효과와 미술반 학생들의 작품에 대한

자신감 고취, 땅그랑 한인회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다.

이날 전시회에는 땅그랑 한인회 오세명 회장을 비롯해 2대 하연수 명예회장, 차기 4대 채만용회장 등 많은 내외빈과 관계자가 참석해 자화자찬 네 번째 전시회 오픈을 축하했으며 오픈행사 시간을 저녁 퇴근시간 이후로 맞추어 미술반 학생들 뿐만 아니라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처럼 느끼는 훈훈한 전시회를 연출했다.

땅그랑 반튼 한인회 미술반은 김선옥 초대 강사로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실력을 갈고닦아 왔으며 지난해부터 서현옥 강사가 이끌어 왔다. 이번 전시회에는 미술반 24명의 학생 54점이 출품되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기량이 향상되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준작가의 기량을 보이는 전시회였다.

한인동포의 정서가 현지인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번 전시회는 향후 더 성숙한 전시회로 거듭 날 수 있는 그 시작이 될 것으로 본다.



경성대, 인도네시아 USB 대학교 MOU 체결



경성대학교(총장 송수건)는 지난 11월 7일 인도네시아의 세티아 부디 대학교(Universitas Setia Budi)와 학술교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두 대학은 교수진 방문에 의한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성대학교는 대한민국에서 인도네시아 유학생이 가장 많은 대

학이며, 이들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은 매년 교육부 GKS 우수자비 장학생으로 선발될 정도로 우수한 학생들이 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14년에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경성대학교를 방문하여 특강을 하기도 하였다.

이번 협약은 인니 기업 순위 상위에 올라있는 한국계 현지 투자기업 '코린도 그

룹'의 사회공헌 재단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세티아 부디 대학교 총장 일행의 경성대학교 방문으로 성사되었다. 경성대학교는 "앞으로 더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협의했다"고 말하며,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세티아 부디 대학교는 단일 교육프로그램으로 시작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대학인만큼 우리대학의 인도네시아 학생교육에 대한 강점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터넷 퍼스트 미디어, 볼트 신규 판매 등 정지... 아직 전파 면허 박탈 가능성 있어



인도네시아 대형 유료 TV 서비스업체 퍼스트 미디어(PT First Media)는 21일 자회사 인퍼뉴스(PT Internux)가 운영하는 통신 서비스 '볼트!(Bolt!)"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까지 퍼스트 미디어와 인퍼뉴스가 2016년부터 체납하고 있던 있는 전파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강조했지만, 아직도 이를 따르지 않아 두 회사의 전파 면허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일, 양사가 늦어도 2020년까지 체납료를 갚

겠다고 호소해 면허 박탈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인퍼뉴스의 디키 사장은 "아직 면허 박탈 가능성이 있다. 정보통신부의 명확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볼트 판매, 선불 충전, 후불 통신 서비스를 잠시 중단한다"라고 말했다.

퍼스트 미디어가 체납하고 있는 전파 사용료는 3,648억 4,000만 루피아, 인퍼뉴스가 3,435억 7,000만 루피아에 달한다.

이준기, 아시아 팬미팅 15일 서울서 시작



한류스타 이준기가 아시아 팬미팅 투어로 팬들과 만난다.

이준기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이준기가 2년 만에 아시아 팬미팅을 연다"며 "2018-19 이준기 아시아 투어 딜라이트"를 통해 팬들과 달콤한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준기는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을 포함해 아시아 6개 도시로 떠날 예정이며, 다음 달 15일 서울 공연이 시작점이 될 예정이다.

이준기가 최근 출연한 MN 드라마 '무법 변호사'가 일본, 미국,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에 판매된 가운데 세계 팬들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IBK기업은행, ‘제14기 글로벌 자원봉사단’ 인도네시아에 파견

-금융권 최대 규모 임직원 자원봉사단 파견…현지 10개 초등학교 증개축
기업은행이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임직원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인도네시아에 파견한다.

IBK기업은행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제14기 글로벌 자원봉사단’을 파견해 현지 교육환경 개선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파견 인원은 73명으로 은행권 최대 규모의 임직원 자원봉사단이다. 이들은 12일부터 17일까지 4박 6일 동안 현지 10개 초등학교의 증개축, 아동교육, 문화교류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11년부터 총 13회에 걸쳐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에 총 900여명의 임직원을 파견해 학교신축, 식수설치 등의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또한



▲ 기업은행(행장 김도진)은 임직원 73명이 꾸린 ‘제14기 글로벌 자원봉사단’이 12~17일 인도네시아에서 봉사활동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지 10개 초등학교를 증·개축하고 아동 교육과 문화 교류 등을 한다. (사진=IBK기업은행)

지진과 쓰나미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인도네시아에 지난 10월 긴급구호자금 40억 루피아(한화 약 3억원)를 지원한 바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교육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해외진출 국가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25일 이틀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대한민국 교육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및 국립국제교육원 주관으로 「2018 인도네시아 한국유학박람회」 행사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서울대, 연세대 등 대한민국의 36개 대학과 지자체가 참가하였고 한국유학에 관심이 있는 인도네시아 학생 4,000여 명이 행사장을 방문하여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김창범 주인도네시아 대사, 나다 인도네시아 고등교육부 대외협력국장, 송기동 국립국제교육원장, Eva Latifah UI 한국어학과장 겸 국비유학(KGSP)동문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한국의 대학은 강원대, 경기대, 경북대, 경희대, 계명대, 공주대, 국민대, 금오공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동국대, 명



지대, 북원대, 부경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숙명여대, 순천향대, 연세대, 영남대, 울산대, 인제대, 인하대, 제주한라대, 충남대, 포항공대, 한국교통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림대, 한양대, 흥의대, 대전시 등으로 분위기를 돋우었고, 행사에 참가한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한국유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입을 모았다.

김창범 대사는 축사를 통해

“최근의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작년과 올해 양국 정상의 교차국빈 방문 등을 계기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면서 “신남방정책의 인적교류 확대 차원에서 2018 한국유학박람회의 의의가 크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교육을 기반으로 양국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이날 부대 행사로 「한국-인도네시아 교육 관계자 교류의 장」이 마련되어 인도네시아내 약 40여 개의 유수 고등학교 및 대학교와 한국의 교육 관련 기관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이어 12시부터는 슬탄호텔에서 「2018 KGSP 동문 및 한국관련 교육전문가 네트워킹 오찬」이 개최되어 인도네시아 고등교육부 관계자는 물론, 대사관의 선발 및 추천을 거쳐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한국에서 유학하고 귀국한 후, 정부기관 및 UI 등 인도네시아 유수 교육기관에서 활약 중인 동문 20여 명과, UI, UNAS, UPI, UGM 등 인도네시아 내 한국관련 학과 교수 등 약 50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네트워킹이 이루어졌다.

행사장에는 한국문화원의

개막식 식전공연과 한국문화

해외홍보전 수상작 전시(Talk

Talk Korea!) 및 한국관광공



대한민국 청년을 위한 K-MOVE 프로그램 소개

1. K-MOVE?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대한민국 청년들이 세계로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여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 KOTRA자카르타

K-MOVE 센터?

KOTRA의 해외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리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소개하고, 우리 구인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 채용을 돋기 위해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 K-MOVE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3. 주요 지원 프로그램?

(1) 해외취업장려금

1) 지원대상자: 만34세 이하 해외취업 성공자

2) 취업인정기준: 취업비자, 단순 노무직 제외, 연봉 1,500만원 이상, 근로계약기간 1년이상

3) 지원금액 : 최대 800만원
(1차 3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인정요건 등 세부내용은 월드잡 회원가입 후 공고내용확인
(<https://www.worldjob.or.kr/ovsea/sbsd.do?menuld=1000000041>)

(2) 우리기업 채용 지원

- 1) 자카르타 경제신문, 인도웹 등구인 광고비 지원(최대 90%)
- 2) 자카르타 K-MOVE 센터등록 인재풀 소개
- 3) 기업소개 자료 제작 및 기업 홍보 지원
- 4) 채용박람회참가비 지원 등

구인·구직, KOTRA (K-MOVE 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지원 및 혜택

구인광고 지원 :
신문-온라인 광고비
최대 90% 혜택

구직자 취업 후
정착지원금(800만원)지급
(만 34세 이하, 첫 취업 시 1년간 나누어 지급)

KAI, 인니와 1천억원 규모 수출계약…기본훈련기 3대 추가공급 인니 공군 운용 T-50i 항공기에 레이더·기관총 장착 포함



▲ KAI, 인도네시아에 KT-1B 3대 추가 수출 김조원 KAI 대표와 아구스 스피아지(사진 왼쪽) 인도네시아 국방부 시설획득청장이 8일 자카르타 JI엑스포 전시장에서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 방산전시회 'INDO 디펜스 2018' KAI 부스에서 기본훈련기 KT-1B 3대 추가 공급과 T-50i 항공기에 레이더 및 기관총 장착을 위한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2018.11.8 [국방부 공동취재단=연합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8일 인도네시아와 1천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김조원 KAI 대표와 아구스 스피아지 인도네시아 국방부 시설획득청장은 이날 'INDO 디펜스 2018' 방산전시회가 열린 자카르타 JI엑스포에서 계약식을 했다.

수리용 부속을 포함해 기본훈련기 KT-1B 3대를 추가 공급하고, 인도네시아 공군이 현재 운용하는 T-50i 항공기에 레이더와 기관총을 장착하는 내용이 골자다.

KT-1B는 계약 발효 후 28개월 이내에 최종 납품되고, T-50i는 25개월 이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했다.

KT-1B는 우리 공군의 기본훈련기 KT-1의 인도네시아 수출형 항공기다. 이번 수출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세 차례에 이은 네 번째로



▲ KAI, 인도네시아에 KT-1B 3대 추가 수출 계약 [국방부 공동취재단=연합뉴스]

기종으로도 운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이번 T-50i 레이더와 기총 장착을 통해 경공격기 기능까지 갖추게 됐다. T-50i는 T-50 고등훈련기의 인도네시아 수출형 항공기로 인도네시아 공군은 2011년에 16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KAI 측은 현재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24대와 경공격기 FA-50 16대를 인도네시아 공군에 추가로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조원 대표는 "인도네시아 공군에 KT-1B와 T-50i의 완벽한 후속 군수 지원을 통해 군 현대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수출 등 추가사업 발굴로 양국의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피아지 시설획득청장은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군 현대화 프로젝트의 하나로 획득한 KT-1B와 T-50i 운용에 만족한다"면서 "추가 계약 체결로 전력 보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전날 'INDO 디펜스 2018' 행사장에서 현지 국영기업인 PT. PAL 조선소와 잠수함 3척 추가 건조 사업 수주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 협약을 맺었다.

대우조선해양 특수선사업본

부장 박두선 전무는 "연내 실제 계약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이라며 "최근에는 PT. PAL 조선소에 잠수함 기술 협력 센터를 개소해 잠수함 공동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인도네시아와 3척의 잠수함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우리 해군의 209급 장보고함을 개량한 1천400t급의 잠수함을 수출하면서, 대한민국은 세계 5번째 잠수함 수출국 대열에 끼었다.

총 3척의 잠수함 중 1~2번 함은 국내에서 건조해 인도네시아에 납품했다. 3번 함은 옥포조선소에서 블록 형태로 건조 후 대우조선해양의 기술지원 아래 현지 PT PAL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실제 2차 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총 12대를 도입할 예정인 인도네시아 해군 잠수함 중 6대가 국내 기술로 만든 잠수함이 된다.

[연합뉴스]

에너지광물자원부, 태양광 발전에 관한 새로운 규정 공포… 태양 전지 패널 설치 등의 내용 포함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에 관한 에너지광물장관령 '2018년 제49호'를 최근 공포했다.

가정용을 포함한 태양 전지 패널 설치, 국영 전력 PLN에 매전하는 경우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2018년 제49호'는 기업과 일반 가정에 설치하는 태양 전지 패널에 대한 전력망이 온 그리드 발전일 경우 PLN

에 고객 번호, 태양 전지 패널의 규격 등의 사항을 신청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PLN은 신청 후 15일 이내에 허가를 내줘야 한다.

새로운 규정은 또 태양 전지 패널의 설치 장소가 지붕이나 옥상 외의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정했다. 또, 국영 전력 시험기관에서 패널 설치 장소 등에서 인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한편, PLN에 매전하지 않는 오프 그리드 발전은 따로 회사의 허가나 설치 장소에 따



른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에너지광물자원부 신재생에너지국에 태양전지패널에 대한 발전 용량을 보고 및 신청해야 한다.

톰슨 목금형(톰슨발형)

철판 컷팅 레이저 신규 가동



철판, 아크릴, 합판, 폐그라이트등 레이저컷팅
종이, 고무, 가죽, 스판지, 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컷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톰슨 목금형'

생산성 향상
짧은제작기간
정밀성
품질 향상
경제성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 최상의 톰슨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 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PT. BUSAN LASER INDONESIA

DELA SILIKON 2 JL. KALIJ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gmail.com
http://www.bslaser.com

Steel Laser Cut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부산 레이저 목형

부산광역시 진구 신천대로 65번길 38호 (범천1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busan114@korea.com
http://www.bslaser.com

Steel 레이저 절단, 씨링칼, 톰슨금형, 특수 칼금형

대통기획, 키스톤마케팅과 동남아시아 디지털마케팅 협업



▲ 대통기획 이갑 대표와 키스톤마케팅컴퍼니의 이영훈 공동대표가 23일 서울 중구 대통기획 본사에서 동남아시아 지역 디지털마케팅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기획 제공=연합뉴스]

롯데그룹 계열 종합광고대행사인 대통기획은 23일 광고회사 키스톤마케팅컴퍼니와 동남아시아 지역 디지털마케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이날 MOU 체결에 따라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미디어 기획, 퍼포먼스 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GS수퍼마켓, 한류 마케팅으로 현지 공략 박차



▲ GS수퍼마켓, 인도네시아에서 'GS로 소풍가자' 행사 개최 / GS수퍼마켓 인도네시아 법인은 이달 10~11일, 17~18일 2주에 걸친 주말 동안 자카르타 인근 GS수퍼마켓 르겐드 위사타점 매장과 앞 광장에서 한국 음식과 문화를 즐기는 'GS로 소풍가자' 행사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행사장에서 현지인들이 김밥 만들기 체험을 하는 모습. [GS리테일 제공]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GS수퍼마켓이 한식과 K팝 등 한류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한층 높였다.

GS수퍼마켓 인도네시아 법인은 이달 10~11일, 17~18일 등 2주에 걸친 주말 동안 자카르타 인근 GS수퍼마켓

르겐드 위사타점 매장과 그 앞 광장에서 한국 음식과 문화를 즐기는 'GS로 소풍가자' 행사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사 기간 참가자들은 20m 길이의 김밥과 100인분 비빔밥을 함께 만들어 먹었으며, K팝 가

[대사관 안전 공지] 환전 관련 금융사기 주의

최근 중국에서 환전을 빙자한 금융사기 사건이 여러 건 발생하여 다수의 우리 국민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범죄수법〉

- 용의자가 인터넷 사이트 등 교민 커뮤니티에 기준 보다 높은 환율을 주겠다는 광고 게재

- 높은 환율을 적용해서 거래하겠다는 광고에 속은 피해자들이 용의자에게 연락하면 한화를 피해자의 한국 계좌에 먼저 입금

- 돈이 입금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안심하고 그에 해당하는 위안화를 용의자의 중국 계좌에 송금한 후 한국 계좌에서 돈을 찾으려고 하면 송금된 돈이 이미 지금 정지되어 있어 피해 발생

* 용의자가 직접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에 속은 제3자가 피해자의 계좌에 송금하였다가 나중에 피해 입은 사실을 알고 지금정지 신청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거래정지됨

인도네시아에서 2017년 위와 같은 수법의 사기사건이 발생한 사례가 있고, 수법은 다르지만 환전을 빙자하여 먼저 송금 받은 후 약속한 돈을 보내지 않는 사기사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동포 여러분께서는 인터넷 사이트나 뱅드를 통해 모르는 타인과 환전 거래하는 행위를 삼가고, 환전은 반드시 공인 환전소나 은행을 이용하는 등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 “수마뜨라 종단 고속도로 2024년 개통 목표”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3일 현재 건설 중인 수마뜨라 종단 고속도로의 개통 목표 시기를 2024년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이 고속도로는 수마뜨라 북쪽의 아제에서 남쪽의 람滂주 바까우해

니(총 1,880킬로미터) 까지 연결된다.

현지 언론 쁨빠스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3일 수마뜨라 고속도로 중 남단 구간에 해당하는 람滂주 건설 현장을 시찰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바까우해니-뜨르방기 브사르 구간(총 연장 140킬로미터)은 다음달 완공, 뜨르방기 브사르-남부 수마뜨라 빨렘방 구간

은 내년 6월에 완공될 전망이다”라고 설명했다.

바누끼 공공·국민주택 장관은 “아제주에 건설되는 고속도로 길이 74킬로미터 중 21킬로미터의 용지 매수도 완료했다”라며 “내년 말에는 전 구간의 약 30%에 해당하는 575킬로미터까지 완공하는 것이 목표이다”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주식 투자자 신규 등록, 올들어 20만 명 돌파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를 운영하는 부르사 에펙 인도네시아(PT Bursa Efek Indonesia, 이하 BEI)는 지난 19일 현재 연초부터 주식 투자자의 신규 등록 수가 2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이 올해 설정한 목표 13만명을 크게 웃돌았다고 인베스터 데

일리 등이 보도했다. BEI 하산 이사(개발 담당)에 따르면, 지난 15일 현재 주식 투자자의 등록 수는 82만 7,000명. 주식 투자자의 신규 등록은 지난 8월에 2만 2,000명, 9월에 2만 8,000명, 10월에 3만명으로 8월 이후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하산 이사는 “BEI는 앞으로도 주식 투자에



대한 계통 활동을 충실히 하면서 젊은 투자자의 이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SENIOR GOLF PROMO

WEEKDAYS IDR 550.000 MANDATORY CART

GET FREE F&B VOUCHER IDR 50.000*

* VALID ON WEEKDAYS ONLY * VALID UNTIL 31 DECEMBER 2018 * THIS VOUCHER IS ONLY VALID ON THE SPECIFIC DAY

Jl. Modern Golf Raya No. 99, Perumahan Kota Modern, Tangerang 15117 - Indonesia
Phone : +6221 552 9228 | Fax : +6221 552 9177
Email : marketing@moderngolf.co.id | Website : www.moderngolf.co.id



12월 볼만한 영화

국가부도의 날



모든 투자자들은 한국을 떠나라. 지금 당장
1997년,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호황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때,
곧 엄청난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을 예견한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 '한시현' (김혜수)은 이 사실을 보고하고, 정부는 뒤늦게 국가부도 사태를 막기 위한 비공개 대책팀을 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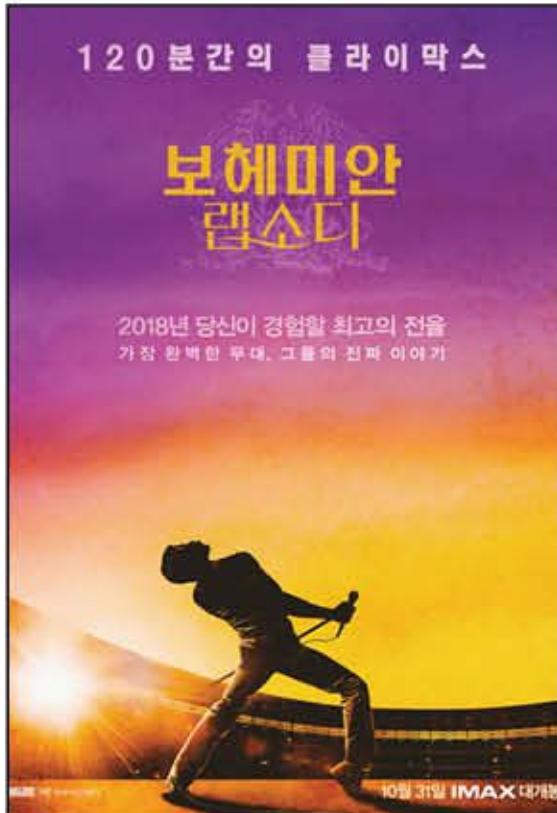
한편, 곳곳에서 감지되는 위기의 시그널을 포착하고 과감히 사표를 던진 금융맨 '윤정학' (유아인)은
국가부도의 위기에 투자하는 역배팅을 결심, 투자자들을 모으기 시작한다.

이런 상황을 알 리 없는 작은 공장의 사장이자 평범한 가장 '김수' (허준호)는 대형 백화점과의 어음 거래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소박한 행복을 꿈꾼다.

국가부도까지 남은 시간 단 일주일.
대책팀 내부에서 위기대응 방식을 두고 시현과 '재정국 차관' (조우진)이 강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시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IMF 총재' (뱅상카셀)가 협상을 위해 비밀리에 입국하는데…

보헤미안 랩소디



"나는 스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전설이 될 것이다"
공항에서 수하물 노동자로

일하며 음악의 꿈을 키우던 이민자 출신의 아웃사이더 '파워버사라'

보컬을 구하던 로컬 밴드에 들어가게 되면서 '프레디 머큐리'라는 이름으로 밴드 '퀸'을 이끌게 된다.

시대를 앞서가는 독창적인 음악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관중들을 사로잡으며 성장하던 '퀸'은 라디오와 방송에서 외연을 받을 것이라는 음반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려 6분 동안 이어지는 실험적인 곡 '보헤미안 랩소디'로 대성공을 거두며 월드스타 반열에 오른다.

그러나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던 '프레디 머큐리'는 솔로 데뷔라는 유혹에 흔들리게 되고 결국 오랜 시간 함께 해왔던 멤버들과 결별을 선언하게 되는데…

세상에서 소외된 아웃사이더에서 전설의 록밴드 '퀸'이 되기까지, 우리가 몰랐던 그들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성난황소



거칠었던 과거를 벗어나
수산시장에서 건어물을 유통
을 하며 견실하게 살던 동
철(마동석),

어느 날 아내 지수(송지효)가 납치되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만 그녀의 행방은 묘연하기만 하다.

그리고 동철에게 걸려 온 납치범(김성오)의 전화!
오히려 지수를 납치한 대가로 거액의 돈을 동철에게 주

겠다는 파격 제안을 하고,
이에 폭발한 동철은 지수를 구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
작하는데…!

느낄 오지? 잘못 건드린 거

도서출판/인쇄
광개토

실크로
드 인도

네시아는 디자인 연구소로써
그간 코파의 힘, 미디어 코리아, 건설신문 창조를 발행 해 왔고
기업 ID, 홍보용 카드록, 북 디자인과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 해 왔습니다.
이제 직접 인쇄공정을 수행 해 낼 수 있는 설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런 제품들을 제작합니다

카드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함께 하겠습니다!

